

2018 년 10 월 일 7 “복음의 여정(3)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요 2:15-17)

<도입>

피조물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창조되었고,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창 1:28). 이 책임을 부여받고 세상을 돌보며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한 목적이었습니다. 돌본다는 뜻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딜레마는 세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1]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는 요한 복음에서와는 달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일까요?

16 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을 인간 중심의 정욕과 자랑의 소유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과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자랑으로 삼는 사람의 가치관의 변질과 타락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타락하여 얻은 비성서적 인간의 욕망과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며, 품은 가치가 잘 나타나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16 절의 함의는 아름다운 자연, 동식물 등,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은 먹음직 하고(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이생의 자랑)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 세상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창으로 보라고 배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의식과 강박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을 채우는 것을 남보다 잘 되는 기준으로 삼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입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사람 됨의 축복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경쟁 가운데 잘 살아남기 위해 남보다 더 갖추고 더 오르고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성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서도 이것을 잘 못 벗어나는 현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및 양육자들로부터 백지 같은 어린 심령 속에 경쟁력을 잃으면 실패자로 살게 된다는 메시지를 새겨줍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봐 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심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없이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심겨진 세상적 프리즘으로 보며 성장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윤리적 프리즘(예의와 도리가 기준), 능력적 프리즘(얼마나 잘 해내는가), 외모 프리즘,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멋지고 매력 있는) 프리즘 등입니다. 거듭 언급합니다! 윤리와 능력, 외모, 인간적 멋짐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기준을 넘어야만 소중하고 칭찬받는 존재라 믿는 가치관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인생의 가치를 보기 어렵습니다.

[3] 그러면 무엇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 말은 “넌 지금 네 자신이 매우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받는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소중합니다. 충분히 사랑받으며 양육되면 세상 가치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빠진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또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보면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저 가치를 잘 지켜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 딸리고, 거스르고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완전하게 알 수 없는 중요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지,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영적 곤경에 처한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늘 각인시킵니다. 그런데 크신 사랑에도 별 관심 없고, 죄인임에도 회개하지는 않는다면 나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올바르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정욕과 자랑의 대상으로 사랑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께 진정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갈구할 때 얻는 영적 즐거움(은사)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진지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일은 자신을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닮아가십시오.

<맺음>

세상적 방식과 가치관을 극복해가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현실세계가 이루어지며, 모두의 삶 속에 허락된 사람과 피조물들의 가치가 순수하게 꽃피우도록 섬기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요 3:16 과 요일 2:16 을 비교하면서 각각 어떤 맥락을 품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2. 귀한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여정에서 거침돌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세상 방식과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는 것에 왜 방해가 될까요? 2:16 에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내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복음에 잘 길들여진 사람은 무엇에 대한 인식이 뚜렷합니까? 위의 글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